

3/7 월요일

골 2:1-3

1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¹위로를 받고 ²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³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⁴풍성하게 되어서 ⁵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3 그리스도 안에는 ¹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엡 3:8-9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고전 2:7, 9-10

7 오히려 우리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9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후 13:11

11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골 1:9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빌 3:8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각주에서 발췌

2:2¹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럴 때 그들은 함께 짜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을 갖게 된다.

2:2² 이것은 우리가 누린 신성한 사랑을 가리키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은 성도들을 함께 짜이게 하는 요인이며 요소이다.

2:2³ 사랑 안에서 함께 짜이는 것은 감정과 관련되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생각과 관련된다. 우리가 마음에서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짜이며, 그래서 생각이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2:2⁴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과 같다.

2:2⁵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곧 몸에 관한 책이고(엡 3:4),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곧 머리에 관한 책이다.

2:3¹ 역사에 따르면, 헬라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영지주의(靈智主義)의 영향이 바울 시대에 이방 지역의 교회들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그러므로 사도는 골로새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경륜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 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 있다(엡 1:8, 17)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는 주께서 수년 동안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할 때, 자매 서신인 에베소서가 몸인 교회에 관한 것인 반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에베소서는 사람의 영을 크게 강조한다. 거기서는 「영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사람의 영을 한 번만(2:5)언급한다. 골로새서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수년 동안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말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데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려면 그들의 마음 상태에 관심해야 함을 알았다. 그가 1 장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운다는 말씀으로 결론짓고 2 장은 마음들이 위안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이 마음과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다른 관습들과 규례들과 철학들로 인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다. 그들은 차갑고 불만족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과는 분쟁과 분열이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해를 입히지 않도록 교회의 문을 지켜야 한다. 유대교 규례들과 관습들과 이방 철학과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완고하게 하고 의견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식어지고 나뉘지고 서로서로 분리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들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분투한 것이다.

...

2 장 2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에 대해 언급한다.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에 그 결과는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 예를 들면 교회의 입장에 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일부 성도들은 교회의 입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매우 미지근하고 교회의 입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충만한 확신을 줄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

...

골로새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충만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확신을 가졌다면 천사 숭배함으로 돌아서거나, 관습들과 규례들과 철학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 관한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충만한 확신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골로새인들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었고 그러한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함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소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습들과 규례들과 철학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2 장 2 절에서 바울은 충만한 확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에 대해 언급한다. 다시 한번 교회의 입장을 예로 들어 이것을 생각해 보자. 어떤 성도들은 교회의 입장에 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이해에 있어서는 부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교회 입장에 대해 말할 때 그들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부요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의 입장에 대한 진리에 관하여 온전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갖는다면, 우리는 이에 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교회의 입장에 관하여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가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항상 말할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무한하신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충만한 확신 있는 이해를 풍성하게 갖는다면 그분에 관해 말할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풍성한 이해는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줄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17 장, 18 장)

3/8 화요일**골 2:4-7**

4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¹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 ²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¹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²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¹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²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롬 8:4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5:16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엡 3:17-19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2:20-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2:5¹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

2:5² 직역하면, 안으로 믿어 들어간.

2:6¹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도록 할당된 몫이다(골 1:12),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고후 3:17)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 안에 거하시면서(딤후 4:22)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2:6²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행한다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물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활동해야 한다. 좋은 땅은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갈 3:14)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딤후 4:22, 롬 8:16)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롬 8:4, 갈 5:16)이 신약의 중심이며 중점이다.

2:7¹ 우리는 식물과 같이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유기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영양분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토양, 곧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풍성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건축시키는 요소와 실질이 된다. 뿌리를 내리는 일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일이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건축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일이며 이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다.

2:7²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 곧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이식되어 이방 철학이나 유대교의 규례같은 다른 어떤 것에 뿌리 박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았다. 그는 골로새인들이 철학은 그들이 뿌리 박아야 할 흙이 아님을 보기 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왔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흙이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고」 있다(2:7). 세움을 입는 것은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뿌리를 박았지만 여전히 세워지는 과정에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문제이다. 건축은 단지 한 개의 품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짜 맞추어지는 많은 품목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했다. 단체적으로 세워지려면 골로새인들은 유대교의 관습들과 이교도의 규례들과 철학들을 버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이식되어 다른 것에 뿌리를 박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교회 생활로부터 미혹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어떤 종류의 철학이나 규례나 관습이나 실행을 취할 때마다 교회 생활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믿는이들과 분별되어 있다. 그러한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교회 생활을 관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어떤 관념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가운데의 일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결과,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할 마음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체적으로 세움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그리스도 안과 교회 안에서 세움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19 장)

3/9 수요일

골 2:4, 8

4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¹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²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8 누가 자기의 ¹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²전통과 ³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⁴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막 7:6-8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위선적인 여러분에 관하여 잘 선언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이,

8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습니다.”

갈 1:14-16b

14 또한 나는 유대교 안에서 내 동족 중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고전 2:1-5

1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3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4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5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2:4¹ 우리는 그럴듯한 말과 유창한 말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매우 그럴듯하고 또 유창하게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럴듯한 말과 유창한 말에 그리스도의 실재가 없을 수 있다.

2:4² 믿는 이들을 속이고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철학과 같이 진리와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골 2:8).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골 3:4), 몸의 머리가신 그분을 붙들며(골 2:19),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을 알고(골 2:2),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체험하며 (골 1:27),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분 안에서 행한다면(골 2:6),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다.

2:8¹ 이것은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가리킨다. 영지주의는 유대 철학과 동양 철학과 헬라 철학이 혼합된 것이며, 헛된 속임수이다.

2:8² 전통은 문화와 관계가 있고, 문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 골로새에 있던 영지주의 가르침의 근원은 사람의 전통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적인 실행에 근거한 것이었다.

2:8³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4 장 3 절에서도 사용된다(참조 갈 4 장 각주 3'), 여기에서 이 표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 가르침은 고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금욕주의,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관한 의식에 속한 규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2:8⁴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을 통제하는 원칙이시고, 모든 참된 가르침의 실재이시며, 모든 관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가려내는 유일한 척도이시다. 이 책은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은 2 장 4 절을 「내가 이것을 말함은」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은 바울이 2 절과 3 절에서 총명한 확신있는 이해의 모든 부요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총명한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언급한다.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다.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 1 장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는 물 침례나 안식일의 규례 따위에 대한 교훈들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속이거나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타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나고 영적인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안목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8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한다.

4 절에 나타난 첫째 단계는 미혹당하는 것이었고 8 절에 나타난 둘째 단계는 약탈물로서 노략당하는 것이다. 「약탈물」이라는 단어는 손상을 입힌다는 뜻이 아니라 전리품이나 포로가 된다는 뜻이다. 약탈물로 노략당한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린 것이다.

...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의 철학으로 우리를 약탈물로 노략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헬라어에서 「그의」라고 번역된 말은 강조 관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특정한 철학을 지칭한다. 골로새 신자들이 사로잡혔던 철학은 그노시스교로서, 그것은 유대와 동양과 헬라의 철학의 혼합물이었다.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노시스교는 헛된 속임수이다. 사실상 모든 속임수가 헛된 것이다. 실제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참된 것은 결코 속임수가 될 수 없다.

...

이 구절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지,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다」. 골로새에 있던 그노시스주의적인 교훈의 근원은 사람의 유전이었다.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적인 행습에 의거한 것이다. 문화적인 많은 전통들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런 것들을 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천주교나 교파들 안에 있는 전통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리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한가지 원칙은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서 시험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따른 어떠한 것을 주의하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만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으로부터 유전으로 전해 내려온 어떤 것이 성경의 거룩한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필요가 없다.

...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을 좇은 것일 뿐 아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은 것이다.

여기서와 2 장 20 절과 갈라디아서 4 장 3 절에서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은 실체를 의미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금욕에 관한 의식 규례를 이루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 바울의 눈에는, 사람의 유전은 단지 초보적인 원리일 뿐이었다. 이러한 유전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 포함된다.

...

바울은 8 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좇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모든 참된 가르침의 실제이며,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의 유일한 척도이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나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가 기만에 대해서, 또 먹이로 사로잡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고 믿는다. 이 메시지들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견고한 방비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방비가 없다면, 우리는 쉽사리 미혹되거나 노략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모든 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 체험한다면 미혹되거나 노략당하지 않을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터디, 21 장)

3/10 목요일

골 2:9-12

9 ¹ 신격의 모든 ² 총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¹ 총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²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1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¹ 손으로 행하지 않은 ²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³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12 여러분은 ¹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²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³ 일으켜졌습니다.

요 1:16-18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골 1:19-20

19 왜냐하면 모든 총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벧후 1:1-2

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각주에서 발췌

2:9¹ 이것은 신격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창조물들이 나타내는 신성한 특성들(롬 1:20)과는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를 가리킨다. 신격의 총만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과는 대립된다. 세상의 전통과 초보적인 교훈은 신격의 총만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

2:9² '총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의 표현이 거한다. 에베소서 3 장 각주 19³ 참조.

2:9³ 여기서 '몸을 지니신'은 직역하면 '몸으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입으신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며, 신격의 모든 총만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신격의 총만이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지만,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부터,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신격의 총만

은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격의 총만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몸(빌 3:21) 안에 지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한다.

2:10¹ 헬라어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함축한다. 모든 총만이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고전 1:30) 후에, 모든 신성한 풍성으로 총만하게 되었고 채워졌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근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통치와 권세들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머리이시며, 이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대립된다(골 2:18).

2:10² 여기에서 통치와 권세는 사탄에게 종속되어 공중에서 권세 잡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2 장 각주 15¹ 참조.

2:11¹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능력의 영에 의해 적용되고 집행되며 수행된다.

2:11² 이것은 영적인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강력한 효능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합당한 침례를 가리킨다. 이것은 금욕주의와 반대된다(골 2:20-22).

2:11³ 여기에서 '벗어 버리는'은 옷을 벗듯이 어떤 것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2:12¹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는 것은 육체의 몸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2:12²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벧후 1:1).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된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히 12:2).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이 더욱더 우리 안에 주입된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이 살아 있는 믿음을 통해서, 침례의 일으켜지는 방면으로 상징된 부활 생명을 체험한다.

2:12³ 침례에는 우리 육체가 끝나는 장사(葬事)의 방면이 있고, 우리 영이 발아하는 방면 곧 일으켜지는 방면이 있다. 침례의 일으켜지는 방면을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3/11 금요일**골 2:13-15**

13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¹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²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¹규례들이 적혀 있는 ²증서를 하나님께서 ³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⁴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하나님께서 ¹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²벗기시어 ³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⁴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엡 1:17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엡 4:13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6:12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빌 3:8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벤 후 1:2-4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2:13¹ 우리는 죄 때문에 영 안에서 죽어 있었다.

2:13²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벧전 1:3),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것을 체험한다.

2:14¹ 의례적(儀禮的)인 율법의 규례들과 그 의식(儀式)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 혹은 방식이다. 2 장 20 절과 21 절에서도 동일하다.

2:14² 법률 문서, 계약서. 여기에서는 성문화된 율법을 가리킨다.

2:14³ 혹은, (율법의 조례를) 없애셨고, 말소하셨고, 삭제하셨고, 폐지하셨고.

2:14⁴ 이것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 버리는 것이며(엡 2:15), 이것이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는

이단을 제거한다.

2:15¹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 천사들이다. 골로새에는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정해졌고,

심지어 천사들의 규례로 여겨지기까지 했다(갈 3:19, 행 7:53). 이점에 근거하여 골로새에 있던 이단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라고 가르쳤다(골 2:18).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규례들로 이루어진 율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골 2:14), 또한 주도적인 악한 천사들을 벗기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단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골 2:10)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이 제거되었다.

2:15² 혹은, 골로새서 3 장 9 절과 같이 ‘벗어 버리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2 장 13 절부터 15 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밝혀 준다. 그것은 (1)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 (2) 의례적인 율법의 규례들을 없애 버리는 것, (3) 악한 천사의 세력을 벗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 하나님은 분주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과 환경은 깨끗하게 되었다.

2:15³ 이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도록 보여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천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공개적으로 수치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2:15⁴ 혹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이 구절들에서 바울의 관념은 율법과 천사들이 십자가를 통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악한 천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김을 당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율법이나 천사들의 정사가 설 자리가 없다. 골로새인들이 규례를 따르고 천사들을 경배한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규례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골로새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퍼지도록 허락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정사를 정복하시고 그들을 부끄럼당케 하셨다. 천사 숭배에 미혹되는 것은 얼마나 큰 실수인가!

...

2 장 13 절부터 15 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훌륭한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그분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악한 정사와 권세들을 벗어 버리신다. 율법은 하나의 장애물이며, 정사와 권세들은 성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천사들을 제거하여 버리셨으므로, 그분의 택한 백성인 우리만이 그분과 함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건들이나 규정들이나 요구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아가기 위해 이곳에 있다. 우리는 율법과 천사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넣으실 수 있게 해야 한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테디, 23 장)

3/12 토요일

골 2:16-17

16 그러므로 ¹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²명절이나 ³초하룻날이나 ⁴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들은 장래 일들의 ¹그림자이며, 그 ²실체는 ³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요 6:35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전 5:7-8

7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러지셨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과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골 1:10, 12-13, 18

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2:16¹ 혹은, 음식과 음료나. 음식과 음료는 만족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상징한다.

2:16² 유대인들의 연례 축제들을 가리키며 기쁨과 누림을 상징한다.

2:16³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상징한다.

2:16⁴ 완성과 안식을 상징한다. 명절은 매년 있는 것이고, 초하룻날은 매달 있는 것이며, 안식일은 매주 있는 것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매일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과 안식을 가지며, 매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고, 일 년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누림을 얻는다. 그러므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재가 되신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광대하시다는 것을 암시한다.

2:17¹ 앞에 언급된 모든 의례적인 율법의 항목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차 올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또한 그리스도이다.

2:17² 여기에서의 실체는 사람의 물질적인 몸처럼 하나의 실질을 가리킨다. 율법의 의식(儀式)들은 사람의 몸의 그림자처럼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것들의 그림자이다.

2:17³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재이시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라이프스테디에서 발췌

우리의 일상 생활 환경에 있는 많은 것들 또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림자이지 참 음식이 아니다. 참 음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참 음료이시다. 우리를 덮고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입는 옷 또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벗거벗음을 가리워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참된 거처이시며, 참된 안식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의 거처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밤에 누리는 안식 또한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우리가 훌륭한 식사를 한 뒤 누리는 만족조차도 참된 만족이 아니라, 만족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

절기는 그 해의 누림과 즐거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일 년에 세 차례씩, 주님 안에서 누림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그 해의 절기를 위하여 함께 모였다. 절기가 즐거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분은 참된 음식이며 참된 음료이며 참된 완성과 참된 안식과 참된 월삭과 참된 절기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먹고 마시며, 매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성과 안식을 가지며, 매달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며, 일 년 동안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 되신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체가 되신다.

1 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분깃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며,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내주하는 영광의 소망이심을 보여 준다. 그는 2 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 후에, 바울은 우리의 매일의, 매주의, 매달의, 매년의 일들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생활에 이른다.

2 장 16 절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항목들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 주위의 궤도를 따르는 지구의 공전과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자전과 공전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우리에게 일(日), 주(週), 월(月), 년(年)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17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그림자의 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음식과 음료의 실제이시며, 우리의 완성과 안식의 실제이시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의 실제이시며, 우리의 누림과 기쁨의 실제 이심을 의미한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매주의 생활, 매달의 생활, 매년의 생활 안에 있는 모든 적극적인 것들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만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유가 되셔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이며, 나의 안식이며, 나의 새로운 시작이며, 나의 누림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음식이며, 나의 음료이며, 나의 만족이심을 간증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방대한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 생활의 모든 상세한 방면도 되신다.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의 호홉이시며 우리의 만유이시다.

(골로새서 스터디, 24 장)

3/13 주일

히 2:6-12, 14-15

6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7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8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12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고,

15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찬송 (영한 동번)

#593 (#818), #163 (#189),
#399 (#538), #401 (#540),
#403 (#542)

추가로 읽을 말씀

라이프 스터디 빌립보서
매시지 17, 19, 21, 23-24

2022. 3. 7 ~ 2022. 3. 11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5 장, 16 장